

달려져 가는 문 열려지는 영혼들

- 김선철 선교사 / 2003. 3. 13 -

안녕하세요? 투르크멘의 김선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역에 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오랜 기도와 기다림 끝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투르크멘에 입국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비자였습니다. 투르크멘에 남아 있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 없는데 이 비자를 얻기 위한 오랜 기도와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결국 4개월 반 동안 기다리다가 제 신분이 발각되었고, “한국에서 온 김00라는 사람이 투르크멘에 한국교회를 세우려한다”는 이유로 내각에서 거절되어 추방을 당했습니다. 비밀경찰에게 불려가 30여분의 심문을 받은 후 재입국 금지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한국에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재도전하기로 했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쳐 투르크멘 외무부의 실수로 10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비밀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마침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놓고 좁은 거실에서 다시 한번 3시간의 집요한 심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너를 당장 감옥에 넣고, 가족들은 한국으로 쫓아낼 것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은 기독교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선교사들을 만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나라에 왜 왔느냐”고 질문을 하길래, “비즈니스하러 왔다”고 했더니 비즈니스 아이টে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는지 제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냈더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그럼, 네가 온 목적대로만 일하라. 그러면 너를 리스트에서 지워주겠다. 절대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다짐시키더군요.

그래서 비자는 3개월씩 연장되었고 투르크멘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투멘을 들어갈 때는 한국어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심문 후 줄지에 비즈니스맨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비즈니스에 문외한이던 저는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 전문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훈련이나 선교학 시간에도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믿음의 여인들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인내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중에 이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유혹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나라인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아내의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안기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한 긴장감과 실적이 없던 비즈니스도 사람을 상당히 지치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비즈니스를 셋업 하는데 열중했고, 드러나는 사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였지만 변변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은 지쳐갔고 ‘내가 지금 뭐하러 온 것인가’라는 사역적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아내인 서눔바 선교사를 통해 2002년 8월부터 비밀스럽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야라는 한 자매가 류마치스가 치유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5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5명이 분산되어 모임을 갖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공부하였는데, 거기서 ‘믿음의여인들’ 교회를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7일 그 중 네명에게 외국인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세례(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멘은 현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전부 침수례를 줍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마야는 3년 전 주님을 영접하고 계속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바쁘르라는 대학생이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주었고, 지하 교회로 인도했고,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까지 주었는데 모임을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세례받기 전과 후의 얼굴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환란과 핍박도 함께 온다는 것을 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전 간증할 때 까지만 해도 얼굴이 굳어있고 긴장하는 것이 보였는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르크멘은 아직까지는 남녀가 따로 모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 개척을 위해 팀에서 목표를 두고 준비 중입니다.

‘믿음의 여인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올해에 ‘믿음의형제들’ 교회의 개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더후보생인 쇼흐랏 형제 부부를 이번 4월말에 이웃나라인 아제르바이잔을 보내어 5개월간의 공동체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훈련비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투르크멘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여 고문과 협박을 자행하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기독교 핍박국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을 꽃피운 쇼흐랏 형제 부부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한 형제입니다. 이들의 훈련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번 간증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르크멘을 비롯하여 많은 미전도 국가들의 문은 굳게 닫혀있고, 파키스탄, 아프간, 예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교회는 역사이래로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르크멘에 ‘믿음의 여인들’ 교회는 5명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단기팀들을 통해 돌아오는 영혼들이 평균 30명 이상입니다. 문은 닫혀있어도 영혼들의 마음은 복음에 활짝 열려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대하면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